이 땅의 乙 위로했던 조태일을 기억한다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야윈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어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버려진 땅에 돋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조태일 '국토 서시' 중에서〉

조태일 기념사업회 설립

문학축전·문학상·생가 복원 등

박석무 전 의원 이사장 추대키로

조태일 문학관 내부모습.

국토를 온몸으로 뜨겁게 노래했던 시인이 있다. 시인은 암울했던 시절 우리 땅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토대로 새날을 희원했다.

또한 시인은 국토를 매개로 낮은 자, 억눌린 자에 대한 무한한 연민을 드러냈다. 아울러 일신의 영달에만 집착하는 '높은 분'들을 향해서는 매서운 질타를 가하기도 했다. 대담하면서도 남성적인 그의 시는 당시 억눌려 있던 많은 이들에게 한줄기 햇빛 같은 위안을 주었다.

더욱이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작금에 그의 시는 예사로 읽히지 않는다. 우리의 국토에는 무수히 많은 '가지지 못한 자'와 '낮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인은 '버려진 땅'일망정 그 속에서도 싹을 틔우는 풀잎과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에 이르기까지 따스한 눈길로 감싸안는다.

'국토'의 시인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년)을 기념하는 기념사업회가 설립된다. 조태일 시인과 문단활동을 함께 했던 문인들과 광주고 동문, 광주대 문예창작과 제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준비위원회 측은 오는 23일 광주 동구 모 식당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어 이사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고 정관 제정,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예결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태일 시인의 절친한 친구이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국회의원을 지낸 박석무(74·다산연구소 이사장)씨를 이사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사)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는 조태일 시인의 삶과 정신, 문학세계를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시인의 작품 및 배경이 되는 공간을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고 오는 9월에는 16주기에 맞춰 조태일시문학관에서 '조태일문학축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시인의 대표작이기도 한 시 '가거도'의 배경인 신안 현지 답사, 조태일 문학상 신설, 생가 복원, 시인의 문학자료 DB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문단 안팎의 인사 10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고은·나희덕·도종환·신경림·이시영 시인과 문순태·이명한·이호철·이화경·최남일 소설가, 구중서·백낙청·염무웅·임헌영·홍용희 평론가 등이 함께 한다. 여기에 시인의 모교인 광주고와 경희대 국문과 동문, 광주대 문예창작과 제자 등도 참여한다.

곡성 출신 조태일 시인은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고 시집 '아침선박', '식칼론', '국토',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 등을 펴냈다. 특히 삼선개헌과 유신선포 암흑기에도 강직한 시 정신으로 '국토' 연작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한국작가회의 모태인 자유실천문인협회 창립을 주도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봄은 어울림

봄날과 친숙한 클래식 음악회

문화예술협회 23일

(사)문화예술협회가 올해 첫번째 음악회를 23일 오후 7시30분 협동조합BLISS(광주시 남구 진월동)에서 개최한다. 봄날에 어울리는 친숙한 클래식 레퍼토리로 꾸민 무대다.

이날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황인화씨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리차드 클레이더만의 연주로 유명한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를 들려주며 첼리스트 윤소희씨가 생상스의 '백조', 엘가의 '사랑의 인사' 등을 연주한다.

남성 중창단 빅멘 싱어즈가 이태리 칸초네 'Un amore cosi grande', 뮤지컬 '남태평양' 중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조용필의 '친구여'를 부르며 마지막으로 가수 '한종면'은 세계적인 재즈 하모니카의 거장 리오스카의 대표곡인 'my road'를 리메이크한 김현식의 '한국사람', 사이먼앤가펑클의 'The Boxer' 등을 선사한다. 문의 062-384-2033. /김미은기자 mekim@

시민 참여 '세월호 기억의 벽' 타일 작업

광주전남작가회의 내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문인들이 '세월호 기억의 벽' 타일 작업에 나선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는 19일 오후(1~3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4층)에서 타일작업을 한다.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희생자들 추모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작업에는 동참과 기억의 의미가 담겨 있다.

타일은 개당 3000원(11㎝×13㎝)이며 참가자들은 물통, 붓, 신문지 등 준비물이 필요하다.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후원도 가능하다.

문의 010-4137-4462.

/박성천기자 skypark@

세시풍속 재해석 '대인 세시봉'전

전남옥과미술관 21일부터

서문찬 작 '복'

도립 전남옥과미술관(관장 최준호)은 21일부터 5월1일까지 세시풍속을 재해석한 '대인 세시봉(歲時Bon)'전을 미술관 아산1실에서 개최한다. '대인 세시봉' 전에는 회화, 조각, 사진, 만평, 공예,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38명이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 대인예술시장에 상주하고 있는 '다다' 예술인협동조합 소속 작가들이 지난 1~2월 선보였던 전시다.

작가들은 생활문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시풍속들을 작품 속에서 재해석했다. 이들은 다양한 사고와 표현으로 창작한 작품들을 엮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고재근은 힘차게 날개를 펴는 독수리와 복 주머니를 통해 길상의 의미를 담았고, 서문찬은 그림에 캘리그라피적 요소를 가미해 '福(복)' 작품을 만들었다. 홍희란은 솜으로 아기자기한 청양을 제작했고, 강선호는 푸른 바탕에 야생 양인 무플론을 그려넣었다. 문의 061-363-717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양나희 작 'Life scape'

제주를 다녀온 광주의 예술검객

금호갤러리 20~30일 신춘기획전

광주 지역 젊은 청년 작가들이 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화폭에 담았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2015 신춘기획초대전 '제주에 간 예술검객'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김동아·김윤영·성혜림·양나희·엄기준·이재호씨가 초대를 받았다.

'제주에 간 예술검객'은 지난해 중국에 이은 두 번째 여행 프로젝트로, 여행을 통해 느꼈던 감성과 정서를 작품으로 보여주는 전시다.

작가들은 여행을 통해 문화예술촌, 갤러리, 미술관, 공공미술 등 문화예술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도를 경험했다.

김동아는 제주도의 자연과 서정적인 모습을 담은 'Healing' 시리즈를 선보이고, 성혜림은 소녀와 제주도의 풍경 그리고 여행이라는 코드를 함께 담은 작품을 전시한다.

양나희는 골판지와 물감으로 제주도의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지는 한적한 마을의 모습을, 엄기준은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고 있는 자연이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를 화폭에 담았다. 문의 062-360-8432. /김경인기자 kki@